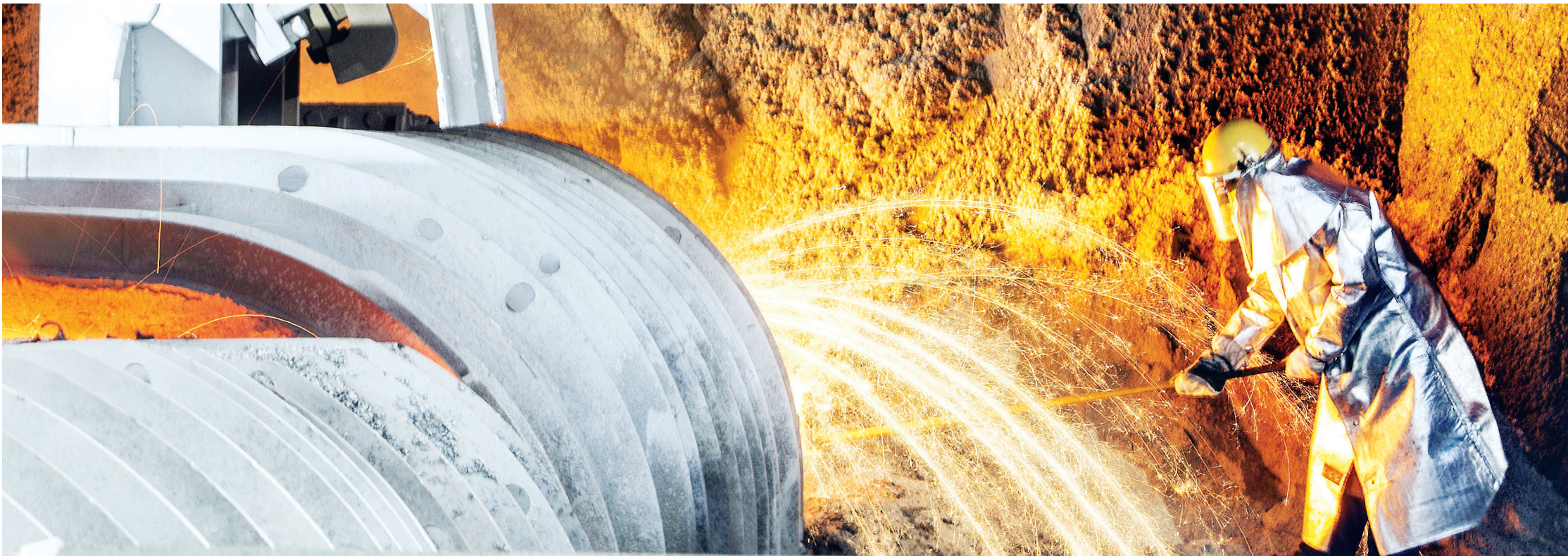




용광로처럼...달아올라라 광주·전남 경제! 새해 첫날인 1일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 1고로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올 들어 처음으로 철광석을 녹여 쇳물로 만드는 출선작업을 하고 있다. 광양제철 고로공장의 하루 평균 조강(粗鋼)생산량은 1만5600t으로, 이는 세계 최대 규모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총선 D-100 김한길 탈당...더민주 분당 가속화

현역의원 9번째...광주·전남 의원들 추가 연쇄탈당 예고
文 “젊고 새로운 인물로 물갈이” 탈당파에 전면전 선언

4·13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대표를 지냈던 김한길 의원이 3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비주류의 좌장격인 김한길 전 대표가 탈당을 결행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분당 사태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4·5면〉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 당을 떠난다. 새해를 여는 즈음에 새 희망을 향해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며 “총선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 다시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이어 “이제 백지 위에 새로운 정치지도를 그려내야 한다”며 ‘정조적 파괴’를 강조한 뒤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새로운 정치질서 구축에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탈당 배경과 관련, “반민주·반민생·반역사의 정치를 고집하는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 보수의 탈을 쓴 수구세력에게 기필코 승리해야 하기 때문”이

라며 “계파 이익에 집착하는 패권정치의 틀 속에 주저앉아 뻔한 패배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이라고 문재인 대표 등 진노 진영을 정면 비판했다.

지난해 12월13일 안철수 의원이 탈당한 이후, 김동철 문병호 유성엽 최재천 권은희 임내현 황주홍 의원에 이어 김 전 대표까지 이탈에 가세하면서 더민주를 탈당한 현역의원은 모두 9명으로 늘었다.

김 전 대표의 탈당으로 더민주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창당주(김한길 안철수 전 공동대표) 두 명 모두 당을 떠나게 됐다.

김 전 대표의 탈당으로 더민주의 분당 사태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당장 김한

길 계의 후속 탈당이 이어질 전망이다. 수도권권의 노웅래, 최원식 의원 등의 탈당이 예상되고 있으며 전남의 주승용 의원은 오는 13일 탈당을 사실상 예고한 바 있다. 여기에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 지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8일 이후 박지원 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전남의 더민주 소속 현역 국회의원들의 후속 탈당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김영록, 이운석, 이개호 의원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으며 광주의 장병완, 박해자 의원 등도 오는 10일 이후, 탈당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 권노갑 고문과 구 동교동계 인사들은 물론 정대철 고문과 구 민주계 전직 국

회의원 40여명도 조만간 탈당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김한길 전 대표 등 탈당자가 발생한 지역에 과감한 수혈로 새 인물을 공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 당내 분당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런저런 연유로 우리 당 의원들이 출마를 하지 않거나 또는 탈당해서 비게 되는 지역에 과감하게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 대한민국 정치를 물갈이하고 우리당을 더 젊고 새로운 정당으로 만들어야 하는 계기로 삼아 나아겠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사상 초유’ 선거구 부재사태 장기화될 듯

선거구 확정위원회가 오는 5일까지 확정안을 내 달라는 정의화 국회의장 요청에 따라 지난 2일 전체회의를 했지만 여야 측 위원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관련기사 4면〉

확정위는 다음 전체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0시부터 시작

된 현정 사상 초유의 선거구 부재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국회의원선거구 확정위원회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내고 “확정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제시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확정기준에 따른 선거구 확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고 밝혔다.

확정위는 “국회의장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방안으로 수도권 분구대상 선거구 중 최대 3개까지 자치구·시·군의 분할을 허용해 분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분구대상에서 제외할 수도권 선거구

농어촌 선거구 의견차 못 좁혀
여 쟁점법안 연계에 야당 반발

더러도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법안 등 쟁점법안과 연계해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쟁점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신당 주자 인터뷰-천정배 ▶5면

신춘문에 동화·시 당선작 ▶16·17면

지난해 시정 첫 결자로 비정규직 896명을 단계·시기별로 정규직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시 분청, 김대중 컨벤션센터, 도시철도공사, 광주 과학기술 교류센터 등 지난해 428명을 포함, 현재까지 총 728명(82%)의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다. 현재 남은 비정규직은 168명으로, 광주시는 올해 안에 모두 직접 고용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윤장현 시장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가는 것이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이자 대원칙”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전과 처우를 개선하고 의견을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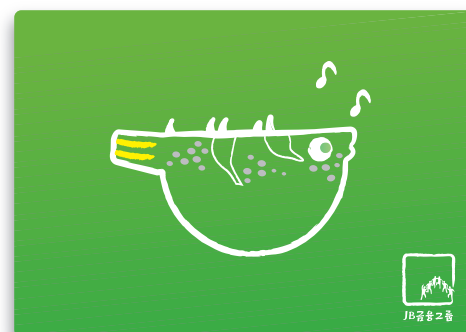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정시모집 | 062)605-1114

www.kjbank.com

희망 2016

2016년
소복소복
행복 가득



JB금융그룹

광주은행

전북은행

JB우리캐피탈

JB자산운용

JB금융지주

광주은행